

白水郎에 대하여

李 杜 鉉*

1966년에 간행된 『濟州島』에서 이즈미 세이이찌(泉靖一)교수는 “朝鮮의 白水郎에 關한 一·二의 疑問”을 제기하였다. 白水郎이란 “漁撈를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하는데, 일본의 『風土記』, 『萬葉集』, 기타의 古記에 보이는 「阿麻」 또는 「阿米」(이 말을 白水郎, 泉郎, 海子, 海士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으며, 潛水士인 동시에 배에 거주하는 漁人 또는 舟人으로 도미나 雜魚도 잡았다. 그러나 濟州島의 潛女는 일본의 白水郎과는 다른 것 같다. 南鮮 各地의 土産物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해 볼 것 같으면 靱(靱, 미역)·라(螺, 소라)·복(鰓, 전복) 등은 南鮮 各地, 羅州, 靈岩, 長興, 珍島, 康津, 海南, 順天, 寶城, 光陽, 興陽, 長連, 海州, 瓮州, 康翎, 長淵 등 여러 고장의 土産物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獲得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土産物들은 潛水 이외에 적당한 획득의 방법이 없을 것이고, 현재 조선의 陸地에서는 白水郎을 볼 수 없는데, 전에는 朝鮮各地에서도 白水郎-男女의 性別은 不明하나 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절부터 이미 濟州島의 潛女들의 陸地로의 出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濟州島의 潛女の 島外 出稼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1900년 대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즈미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晩時之嘆이 있으나 필자의 필드 노트에 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白水郎은 海尺(漁夫) 또는 鮑作人(전복잡는 賤民)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1970년 10월 9일 蔚山市兵營 南外洞 郭南마을의 李鍾吉(86세)씨와 金盛富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79세), 洪宗得(78세), 曹喜守(66세)씨 등과 敬老堂에서 만나 골매기堂祭에 대해 면접하던 중 李鍾吉씨가 옛 軍隊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內隍洞에 沈軍(침군)이 있었다고 하였다. 沈軍은 潛水軍으로 溺死者의 屍體를 건지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沈軍의 役割에 대해선 朝鮮朝의 軍制에 대해서 검토하여 좀 더 알아볼 과제라고 생각한다. 沈軍의 편성이 가능하였다면 潛水가 가능한 潛夫, 海男, 또는 海尺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1970년 8월 12일 萬里浦에서 남쪽으로 15리 거리의 茅項과 어은돌과 波濤里的 堂祭 調査를 하였는데, 그 때 어은돌에서 만난 최승옥(78세)씨가 자무질(潛水질)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어은돌 또는 여언돌 일명, 연동은 당시 호수 47호에 人口는 200명 정도였는데, 약 1할인 20명 정도가 자무질꾼이었다고 한다. 자무질 잘하는 사람을 “질꾼”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자무질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이 하고 사철 잠수질을 하는데 추우면 못할 뿐이고, 음력 6~7월경까지 미역을 따고, 생복과 기타 해조류를 따다. 자기도 전에 잠수하였는데 구룻나무 껍질로 망태기를 만들어 허리에 차고(이 나무 껍질은 굵치지 않는다고 한다) 낫을 들고 안경도 없이 全身裸體로 입수하였다고 한다. 잠수는 약 1분간 하는데 한 물에 한참 내지 세참까지를 하는데 한 참이란 50회에서 100회까지를 말한다. 자무질 뒤에는 한숨 자야한다고 하였다. 자기가 알기에는 이 부근 일대와 賈誼島와 검섬에도 자무질꾼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濟州海女들처럼 물웃이 있는 것도 아니고 全身裸體로 테왁도 없고 망사리처럼 망태기 만 차고 풀베는 낫을 들고 입수하여 미역이나 전복 따위를 따는 극히 원시적인 갯물질 형태였다.

다시 1973년 7월 29일에 어은돌(당시 瑞山郡 所遠面 茅項里 2區) 일명 여운돌(如雲洞)을 찾아 1970년에 찾아보았던 최승옥씨(81세)와 젊은 잠수질(또는 물에질) 즉, 잠수질을 하고 있는 최철영(35세)과 金南潤(22세)을 만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최승옥의 보충 설명을 옮겨보면, 전에 말한 망태기를 만드는 그룻나무는 일명 구레뿔나무인데 봄에 손질하여 망을 뜨고 짚으로 허리에 매었다고 한다. 낫을 갖고 잠수하여 풀베듯 미역을 베는데 한숨(한번 잠수)에 한번 베고, 사람에게 따라서는 두 번까지 베고 나온다고 하였다. 근년에 와서 연안의 미역, 김(海衣)등이 잘 되지 않고, 가의도 등

바다 속의 섬의 양식 외엔 신통치 않다고 한다. 아마 연안의 기름, 기타의 공해의 영향인 것 같다고 하였다.

젊은 두 사람의 잠수꾼은 뺨뜨에 망태기를 차고 물안경을 쓰고 낚을 들고 잠수하였다. 갖고 있는 漁具로도 미역따는 낚, 조개 등을 따는 빗장, 망태기, 물안경에 갇힌을 신고, 채취물을 담는 대래기(조락)가 사용되었다(사진 참조).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9, 泰安郡條에 보면 土産物로 竹箭, 鐵, 白玉, 海衣, 黃角, 細毛, 錢魚, 鰓, 秀魚, 鱸魚, 靑魚, 刀魚, 鯊魚, 石首魚, 魚鱗, 烏賊魚, 石花, 蝦, 蛤, 竹蛤, 麻魚, 海參, 小羅, 江瑤柱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중 海衣, 鰓, 蛤, 海參, 小羅 등은 잠수해야 채취되는 해산물이다. 泰安의 미역은 지금도 유명하며 전에는 進上品이었다. 이러한 泰安미역은 과거에 西海岸一帶의 마을에서 자무질꾼(海尺, 鮑作干, 海男, 潛夫)들에 의하여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현재에도 잠수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純祖實錄』卷 27, 25년 11월 壬宣後의 左議政 李相璜의 啓言에서 당시의 海尺의 고된 生活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조 말 (1825년)의 어민 수탈은 국가의 어세 중과와 어장 사점자의 어세 흑징과 부패관리들의 가렴주구 등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상황의 일단을 이 啓言에서 말하고 있다.

「…至於海尺浦作之戶. 犬爲可憐. 隆冬採鰓. 盛寒刈藿. 男婦赤裸. 溷入海底. 戰兢波毛. 不死誠幸. 薪火岸上. 出而灸身. 膚裂皮皴. 醜黑如鬼. 僅摘數枚之鰓. 艱得數掬之藿. 其得價本. 無以資其翻活. 而監考之抑微. 別質之勒買. 羸羸狼藉. 而每當進上之時. 必事退却. 期捧代錢. 以爲利柄. 吏手競攫. 官耳…」

한 겨울 추위에도 남녀가 적라의 몸으로 잠수하여 근근히 미역과 전복을 따고 물가에 올라와 불을 쪼여 몸을 녹히는데 피부가 터지고 까맣게 불에 그슬려 추한 귀신과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근근히 건져 올린 미역과 전복에 대해서 가혹한 수탈이 따름을 고발하고 있다. 이로서 당시의 어민들의 가련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을뿐 더러 당시 육지에서도 남자와 더불어 부녀자도 잠수했음을 알 수 있다.

김영돈은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로 보이며, 그 기원은 자연발생적인 생업 수단의 하나로 비롯되었으리라 추측된다」고 하였다. 물론 전업적인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일 것이나 생업 수단의 하나로 자연발생적으로 잠수하여 바다 속의 미역이나 전복이나 소라를 따는 일은 일찍이 육지에서도 남녀의 구별없이 행하여져 왔고, 더욱이 서해안 일대에서는 남자들만의 「자무질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음을 보았다.

끝으로 이즈미교수 생전에 白水郎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小稿를 마치려고 한다.